

투자자 서한

InvestWith CEO
2026.06.12

안녕하십니까
인베스트위드 이진욱 대표입니다.

정말 변동성이 심한 주간이었습니다. 급등락을 반복하는 시장으로 인해 고객분들께서도 피로도 높으시고, 다양한 우려가 있으셨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작년 이후 빠르게 상승을 이어온 국내 주식 시장에 대한 다양한 생각들이 공존하고, 수많은 논의들이 오가는 시기입니다. 이러한 혼란한 시기를 통해 고객분들께 당사의 투자에 대한 생각을 나눌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판단되어 고객분들께 드리는 이 글을 직접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6월 2일 KOSPI지수가 8,800을 돌파한 이후 다양한 이유들로 시장은 급등락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하루에도 KOSPI지수가 하루는 8%가 넘게 하락하더니 다음날에는 8%가 넘게 상승하는 시장의 분위기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스페이스X의 상장으로 인한 자금의 쓸림이다, AI인프라 투자 Cycle의 고점에 대한 신호이다, 전쟁으로 인한 물가 상승으로 금리 인상이 예상돼서다, 레버리지 ETF로 인하여 수급 쓸림 현상이 발생하였고 이것이 버블이 터지는 신호이다 등등 정말 다양한 설명들이 있습니다. 원래 주식시장은 오르는 것은 몇 가지 이유 때문이지만, 내리는 것은 수만 가지 이유가 있다는 이야기를 하고는 합니다.

밤하늘에 밝게 뜬 보름달을 보신 적이 있으신지요? 저희 첫째 아들이 요즘 가장 좋아하는 동화가 "보름달을 사랑한 부엉이"라는 책입니다. 다른 동물친구들은 초승달도, 반달도 좋아하지만 부엉이는 보름달을 너무 사랑한 나머지 달님에게 빨리 보름달이 되어달라고 소원을 빌기 위해 하늘로 날아가다가 나무에 부딪혀 기절을 하고 결국 보름달을 보지 못해 슬퍼합니다. 그래서 다른 동물 친구들이 부엉이를 위해 달님에게 보름달이 되어달라고 부탁하는데, 달님이 자신의 모습이 어떻게 보이든 자신은 둥글게 생겼다고 알려주는 내용의 책입니다.

달은 항상 저곳에 둥그런 모양으로 지구를 중심으로 돌고 있지만, 태양 빛을 어떻게 받냐에 따라 초승달로 보이기도, 반달로 보이기도, 보름달로 보이기도 합니다. 거기에 더해 때로는 구름이 잠시 달을 가리기도 하고, 구름이 너무 많은 날에는 마치 달이 없는 것처럼 안보이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달은 그대로 그 자리에 있습니다.

최근 액티브 ETF 시장의 성장과 더불어 주식 시장의 변동성이 과거보다 심해진 것은 사실입니다.

니다. 특히나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로 인해서 대형주의 변동성조차도 극심해졌습니다. 그래서 고객분들의 피로도도 높아지셨을 것이라고 감히 예상해봅니다.

하지만 이럴 때일수록 그 자리에서 돌고 있는 달, 즉 이 사회의 구조적 변화에 대해 깊이 있게 고민해야 됩니다. 저희는 오늘 달이 어떻게 보일지 도저히 정확하게 예측할 수 없습니다. 오늘 구름이 어떻게 떠있을지, 각자가 있는 위치에서 구름이 어떤 모양일지 예상할 수 없지만 달은 그 자리에 있고, 조금만 계산해보면 구름이 없다면 어떤 모양일지 예측할 수 있습니다.

인베스트위드가 주목하는 현 시점의 가장 중대한 구조적 변화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 국내 주식 시장의 구조적 변화이고, 둘째, AI인프라 투자입니다.

과거 KCGI-한진칼 사태 이후 지속적으로 제기되어왔던 지배구조 문제에 의한 주식시장의 왜곡 현상이 정부의 "밸류업" 프로그램 도입에 이어 상법개정 및 배당소득 분리과세 정책, 그리고 부동산에서 주식시장으로의 자금 이동 정책 등으로 연결되며 한국 주식 시장의 구조적인 변화가 이루어졌습니다.

최근 알테오젠이 바이오시밀러 개발 자회사인 알테오젠바이오로직스의 단독 상장을 재검토하고 흡수합병을 추진하는 모습이나, SK하이닉스의 호실적에 지주사인 SK스퀘어가 동행하여 주가가 상승하는 모습은 불과 2~3년 전만 해도 감히 상상하기 어려운 변화입니다. 당사가 현업에서 만나는 수많은 기업의 경영진 역시 이러한 주주친화적 변화를 하나의 '거스'를 수 없는 상수'로 받아들이고 지배구조 전략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ChatGPT의 등장 이후 AI는 이 시대의 가장 중요한 화두가 되었습니다. 반복적으로 매일 AI라는 단어를 듣다 보니, 이 변화가 얼마나 거대한 구조적 전환인지를 가끔은 잊어버리기도 합니다. 인베스트위드에서는 AI로의 대전환이 1800년대 이루어진 철도 투자에 버금가는 수준의 인류 생산성 대전환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지식노동의 생산성이 향상되는 중대한 사건일 것입니다.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은 자체 현금 흐름을 넘어 대규모 자금 조달까지 감행하며 AI 인프라에 천문학적인 투자를 단행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직접 자체 AI리서치 Agent를 개발하면서 AI로 인한 업무방식의 변화와 이로 인한 파급효과에 대해 몸소 경험하고 있습니다. 최근 삼성전자의 예상 영업이익이 일본 상장사 Top 100의 영업이익 합계를 넘어설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는 이유도, 이 거대한 AI 인프라 흐름 속에서 한국 기업들이 경쟁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고객님들 중 많은 분들은 스마트폰이 없던 시절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저 역시 대학 신입생 시절, 스마트폰이 나오기 전이기에 선배 또는 동기들과 연락하기 위해 월말이면 문자메시지 제한 한도가 리셋되기를 기다리던 기억이 선합니다. 당시 어떤 이들은 스마트폰을 '잠시 유행하다 사라질 기기'라 치부하며 도태되기도 했지만, 지금 스마트폰은 우리 삶에 없어서는 안 될 당연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당사는 몇 년 뒤 현재를 돌아보았을 때 당연하게 느껴지는 선택을 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니, 몇 년 뒤 현재를 돌아보았을 때 너무나도 멍청한 선택을 하지 않기 위해 깊이 있게 이 세상의 구조적 변화를 탐구하고 고민하고 있습니다.

물론 결과론적으로 "시장이 오를 때 팔고, 급락했을 때 사면 되지 않느냐"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저희도 당장 내일의 주가를 알게 되어 하루 단위로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선택을 할 수 있으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습니다. 하지만 신이 인간에게는 아쉽게도 미래를 알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것이 인생이기에 더 높은 확률로 예측할 수 있는 구조적인 변화에 집중하겠습니다.

다만, 인베스트위드에서도 말씀드린 주요한 구조적 변화의 현 상황이 어떤지에 대해서는 끊임없이 탐구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우려하시는 AI인프라 투자 사이클에 대해서는 당사에서 팔로업하고 있는 데이터상 유의미한 이상 신호가 없습니다. 그리고 당사의 현업 전문가 네트워크를 통해 최근에도 확인한 결과, 현재의 반도체 사이클이 예년과는 질적으로 다르다는 점을 재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뉴스가 젠슨 황이 한국에 와서 무엇을 먹었는지에 주목할 때 당사는 젠슨 황이 대만의 GTC 타이베이에서 한국의 기업들과 어떤 대화를 나눴는지, 어떤 사업계획을 세우고 있었는지 확인하였습니다. 오히려 젠슨 황의 방한으로 묻혀버린 삼성전자의 AX대전환에 대해 심도 있게 확인하였습니다.

현재까지 저희가 주목하는 두 가지 구조적 변화의 방향성에는 유의미한 이상 신호가 없습니다. 다만 저희는 항상 틀릴 수 있다는 전제 아래, 중대한 변곡점의 신호가 포착되는 순간 미리 마련해둔 보수적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즉각 대응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변동성이 큰 장세일수록 오히려 구름에 흔들리지 않고 달을 바라보는 것이 저희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자리를 지키겠습니다. 믿고 맡겨주신 것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인베스트위드 대표이사 이진욱 올림